



도심의 화려함으로 유명한 홍콩이지만 예스러움도 소박하게 눈길을 끈다. 동양 최대 청동 불상을 만날 수 있는 옹핑 빌리지(왼쪽)와 수상 가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타이오 마을(오른쪽).

/홍콩=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

## 홍콩은 옛 것과 현재…동·서양이 공존하는 곳 종합선물세트





단과이종 오넬



리펄스 베이



리펄스 베이 시장.

## 동양 최대 청동불상 옹핑 빌리지 수상 가옥·고층 빌딩 타이오 마을 경찰 숙소·감방은 호텔로 바뀌고 스탠리 마켓은 유럽 풍경 오롯이

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한데 어울려있다. 화려 한 초고층 빌딩 건물 사이 골목에 허름한 길거리 식당들 이 판을 벌이고 있다. 바다를 딛고 서있는 나무 집 건너 편에는 고급스러운 헤리티지 호텔이 불을 밝히고 있다.

옛것의 정겨움과 현대의 화려함이 공존하는 곳. 동서 양의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곳, 홍콩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도시다.

이맘 때 홍콩의 날씨도 종합선물 세트 같다. 해가 나 는 한낮에는 얇은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지만 비라도 지 나가는 날이며 포근한 겉옷이 필요하다. 하루에도 시시 각각 느껴지는 계절이 다르다. 걷기 편한 초봄 복장에 늦가을 외투 하나 정도는 챙겨들자.

작은 틈을 두고 공존하는 과거와 현대로의 여행. 홍 콩의 속살과 요즘 시대의 화려함을 동시에 만나보고 싶 다면 동양 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 옹핑 빌리지로 가보 자.

산속 여행을 위해 케이블카에 오른다. 관광객들이 많 이 찾는 이동 수단인 '옹핑 360 케이블카'. 5.7㎞의 거리 를 올라가는 20여 분간, 바다와 산이 고요히 발밑을 지 나간다. 바닥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수정 케이블카를 타 면 더 생생하게 바다를 만나고 산을 넘게 된다.

고요한 산사의 산책에 요즘 시대의 보는 즐거움이 더 해졌다. 소극장에서 홍콩 무술 배우들의 와이어 액션을 감상할 수 있는 '스테이지 360'이라는 공연이 있다. 액 션과 유머가 곁들여진 30분 정도의 쇼. 관람객들도 무대 에 설 수 있는 관객 참여형쇼다.

마치 헬기에 오른 듯 인근 타이오 마을을 4D 화면으 로 둘러볼 수 있는 '모션 360', 걸음을 옮기며 부처의 일 생과 깨달음을 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는 '부처와 의 산책'도 있다.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.

268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만나는 거대 불상과 눈이 부실 정도의 금불상 등 산사의 산책도 즐겁다.

산속의 여행이 끝난 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 나러 버스에 오르자. 가이드의 안내 속에 타이오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준비됐다. 옹핑 빌리지 주 차장에서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산길을 지나 작은 어촌

마을에 내렸다.

란타우섬 서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은 핑크 돌고래 로 유명한 타이오 마을이다. 홍콩 달러로 25달러(약 3500원)를 내면 보트를 타고 핑크 돌고래가 살고 있는 바다로 나갈 수 있다. 하지만 쉽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녀석들이다. 운이 좋아야 분홍빛 돌고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. 이번 여행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.

큰 바다 반대 쪽의 마을 투어도 흥미롭다. 바다를 의 지한 채 목조건물이 즐비하게 서있다. 홍콩의 전통적인 수상가옥이 이색적인 곳. 이방인의 눈에는 위태로워 보 이는 건물이지만 이들에게는 소중한 터전이자 삶의 역 사다. 이들이 지키고 있는 고향 마을 바로 건너편에는 고층 아파트가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다. 옛날과 오늘, 한 시대가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게 함께 서 있다.

타이오 마을에 갔다면 작은 골목길을 따라 시장 풍경 도 감상해야 한다. 말린 생선과 부레, 기념품, 과일…. 잠 시 걸음을 멈추고 시장 음식을 맛보고 흥정도 하면서 낮 선 곳에서의 시간을 즐겨보자.

마을 한쪽에 자리한 타이오 헤리티지 호텔도 흥미롭 다. 국경수비대 관서와 해양경찰 숙소로 사용됐던 옛 건 물이 지금은 고급 호텔로 변신했다. 범법자들을 가두어 두던 곳은 호텔 프론트로 이용되고 있다. 철창 너머의 작은 감방은 호텔의 이색적인 장소가 됐다.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이 호텔은 옛 역사와 풍경에 관광객들 사 이에 인기 만점이다. 연초까지 예약이 꽉 차있다.

전통과 현대를 한데 어우르는 숙소를 선택하고 싶다 면 롼콰이퐁 호텔도 좋다. 소호 거리에 위치해 홍콩 관 광객의 다양한 모습과 밤문화를 즐길 수 있다. 비슷한 모습들의 호텔들과 달리 홍콩 전통적이 인테리어도 외 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다. 홍콩의 밤문화를 느긋하게 즐 긴 뒤 늦잠을 자도 좋다. 깔끔한 조식 부페는 오전 10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.

리펄스베이도 다양한 풍경이 어우러진 관광지다. 홍 콩의 고급 아파트가 둘러쌓고 있는 인공 해변을 걷다보 면 한쪽에 작은 사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. 바다를 수 호하는 도교의 여신 틴하우를 모신 바다 위 사원이다. 작은 조각 공원 같은 느낌의 사원이다.

홍콩 속 유럽 풍경이 궁금하다면 리펄스베이 인근 스 탠리 마켓으로 걸음을 옮기자. 바닷가 마을에 펍 스타일 의 가게가 늘어서 있고, 한 곳에는 재래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즐거운 산책길이다. 조금 더 활력넘치는 시장 풍경 을 만나고 싶다면 해가 지기를 기다리자. 없는 게 없고 흥정하는 재미가 있는 몽콕 야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홍 콩의 관광 코스다.

> /홍콩=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 〈취재협조=홍콩관광청·드래곤에어〉

